

## 〈장끼전〉에 나타난 폭력과 그 의미

—작품의 결말구조와 관련하여—

최어진\*

〈차례〉

1. 서론
2. 〈장끼전〉에 나타난 폭력
3. 피해자의 서사로 읽는 〈장끼전〉—돌출적인 결말과 관련하여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장끼전〉에서 ‘폭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 폭력이 ‘피해자’로서의 까투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까투리를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파악해오던 기존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로서의 까투리의 내면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그간 돌출적이라고 취급되어 온 몇몇 이본의 결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장끼전〉에서 까투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린다. 까투리를 향한 폭력의 주체는 장끼만이 아니다. 추위, 배고픔은 물론이고 장끼의 죽음이나 그 뒤에 찾아오는 수많은 새들의 존재와 행태 역시 까투리에게는 폭력이었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장끼전〉에서 폭력은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또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까투리의 삶을 억압한다. 본고에서는 이 반복적이고 중층적인 억압으로 인해 〈장서각본〉이나 〈이수봉본〉 등에서 까투리가 자신의 삶에 폭력을 행하는 결말에 주목해 보았다. 이들 이본에서 까투리는 슬한 새들의 청혼을 거절하다가 느닷없이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재가를 요구하는 장끼에게 굴복해버리거나, 아예 스스로의 삶을 끝내버린다. 이와 같은 결말은 단순히 ‘돌출적’이라고 치부되어

\* 서울대학교 강사

서는 안 되며, 폭력의 피해자로서 까투리가 겪었을 억압과 고통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유지할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폭력의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자책이나 자기 부정, 자포자기의 감정에 주목한 결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삶을 포기하려던 까투리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끼에게 재가하는 <고려대본>의 결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약자와의 ‘연대’를 통해 피해자의 삶이 폐기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장끼전>은 다채로운 결말을 통해 향유층의 다양한 의식 세계는 물론이고 폭력과 폭력의 참상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논의될 지점이 많다 하겠다.

□ 장끼전, 까투리, 폭력, 피해자, 자살, 재귀적 폭력, 약자들의 연대

## 1. 서론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사회의 현실을 민중층의 입장에서 가장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작품군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판소리계 소설의 미적 특질이 ‘민중성’이나 ‘현실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끼전>이나 <변강쇠가> 등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불편함’이나 ‘기괴함’은 판소리계 소설이 지니고 있는 다층적인 작품 세계와 미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여겨진다.<sup>1)</sup> 특히 <장끼전>은 “장끼의 끝없는 자기주장과 과멸, 까투리를 둘러싸고 집요하게 벌어지는 난장판 같은 청혼의 모습” 등을 통해 “뒤틀림의 미학”이 표현되고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sup>2)</sup>

1) 김종철은 <변강쇠가>를 통해 ‘기괴미’를, <장끼전>을 통해 ‘뒤틀림의 미학’이라는 미적 특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김종철, 『변강쇠가와 기괴미』,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47~82쪽; 김종철, 『<장끼전>과 뒤틀림의 미학』, 같은 책, 83~125쪽). 정환국은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해 별도로 다루기도 했다(『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장끼전><sup>3)</sup>의 장끼는 잘못된 확증 편향으로 인해 죽음으로 치닫고 가는 기괴하고도 뒤틀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장끼전>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장끼의 기괴함만은 아니다. 바로 장끼의 기이한 행동과 그로 인한 죽음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까투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 속에는 장끼와 같은 인간이 도처에 존재하며, 우리는 종종 까투리와 같은 입장에서 상대방의 기이하고도 불편한 행동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끼전>의 기괴함이나 불편함은 까투리로 대변되는 현실의 맥락 속에서 해명될 때 그 의미가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난동을 부리고 폭언을 내뱉는 장끼의 기이한 행동과 이를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까투리의 내면을 ‘폭력’의 시각에서 다루어보고자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간 <장끼전>은 판소리계 소설 또는 우화소설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다. 다른 실창 판소리 작품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100여 종에 달하는 이본이 존재하고 있는 점,<sup>4)</sup> 다양한 결말을 통해 향유층의 다채로운 의식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 소설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그러나 관련 논의는 비교적 단조로운 편이다. 이본 연구를 제외하면,<sup>6)</sup> 그간의 논의에서

2) 김종철(1996), 위의 책, 85쪽.

3) 본고에서 말하는 <장끼전>은 판소리 및 판소리계 소설, 가사 등으로 향유된 작품군 전체를 의미한다.

4) 최혜진에 의하면 <장끼전> 작품군에 속하는 이본으로 가사, 소설, 창본류가 100여 종, 설화나 민요 등이 50여 종이 있다고 한다(최혜진,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355쪽).

5) 권영호는 <장끼전>이 ‘자치가’, ‘웅치전’, ‘화충선생전’ 등의 이칭을 갖는 것 역시 작품의 존재 양상이 단순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권영호, 『장끼전 연구의 반성과 전망』, 『어문학』 52, 한국어문학회, 1991, 2쪽).

핵심이 된 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작품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장끼의 형상과 그 의미, 둘째, 작품의 결말부에 등장하는 까투리의 개가/수절 여부와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쟁점에 대한 논의는 대개 당대의 사회구조와 윤리의식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된다.<sup>7)</sup> 이를테면 장끼의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거나, 하층 여성으로서 까투리의 삶에 가해진 계층적·성(性)적인 이중의 억압을 여실히 그려내고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이 작품이 억압적 현실과 ‘윤리’ 및 ‘도덕’의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sup>8)</sup> <장끼전>이 다양한 결말구조를 통해 “졸지에 과부가 된 까투리”의 선택에 주목하면서 향유되었다는 견해 역시 마찬가지다.<sup>9)</sup> 최근 <장끼전> 속 뒤틀린 인물 형상이 가부장제 하에서 은폐되어 왔던 왜곡된 남성성을 여성의 시선에서 폭로한 결과라고 보는 논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sup>10)</sup> 이 역시 장끼의 형상을 통해 당대의 사회구조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장끼의 왜곡된 정신세계에 대한 고찰이 까투

- 
- 6)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이본 연구로는 최혜진(2010), 앞의 논문; 이문성, 『고대본 <자치기>의 특징과 의미』, 『관소리연구』 36, 관소리학회, 2013 등이 있다.
- 7) 정출현은 장끼와 까투리가 유랑민을 상징하며, 이 작품은 이들이 처한 불안정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정출현, 『<장끼전>에 나타난 조선 후기 유랑민의 삶과 그 형상』,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 8) 민족문화사연구소에서 편한 『한국고전문학작품론』(휴머니스트, 2017, 289~298쪽)에서 <장끼전>에 대한 제명을 “윤리 의식의 시대적 반영물”이라고 붙인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 9) 최진형, 『관소리 서사체의 향유 관습과 <장끼전>』, 『서사문학과 문화담론』, 보고서, 2008, 191쪽.
- 10) 서유석, 『<장끼전>에 나타나는 ‘뒤틀린’ 인물 형상과 여성적 시선』, 『서강인문논총』 2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서유석, 『실창관소리 남성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2019.

리의 고통과 내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이다.<sup>11)</sup> 기왕의 연구에서는 여러 이본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투리의 선택을 상/하층 여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나 윤리의 문제가 개입된 결과로 이해해온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의 방식이 까투리를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개인으로서 까투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sup>12)</sup> 장끼의 기이한 삶의 태도나 심각하게 왜곡된 세계 인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당대 가족제도의 부산물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그의 기이하고 폭력적인 행태는 일차적으로 개인 까투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몇몇 이본들은 서사 구성이 지나치게 ‘독자적’이거나 ‘돌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장끼전>의 다양한 서사가 곧 향유층의 다층적인 의식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개별 이본들을 통해 포착되는 다양한 국면들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고는 까투리의 ‘내면’을 통해 돌출적인 결말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이본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행연구의 성과에 유념하면서, 본고에서는 ‘폭력’의 관점에서 <장끼전>을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현실세계에서 우리가 폭력에 주목하는 것

---

11) 이와 관련하여 박일용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전략) 이러한 해석들은 장끼의 부정적 형태를 부각시키는 서술자들의 시각 및 그것에 입각한 구성적 특징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장끼의 행태와 관련된 까투리의 삶을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박일용, 『<장끼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동리연구』 창간호, 동리연구회, 1993, 3쪽).”

12) 뿐만 아니라 작품명에서 장끼를 내세운 경우보다 까투리를 내세운 경우가 더 많고(김종철(1996), 앞의 책, 95쪽), 후대로 갈수록 서사의 중심이 까투리로 넘어오게 되었을 것(최혜진(2010), 앞의 논문, 385쪽)이라는 지적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작품을 까투리의 서사로 읽어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은 그것이 대타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up>13)</sup> 마찬가지로 장끼라는 독선적이고 아집에 찬 인물에 주목해야하는 까닭은 그의 존재가 곧 까투리에게 심각한 억압이자 폭력이었으리라는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장끼전>에서 폭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 폭력이 까투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장끼전>을 까투리 중심의 서사로 읽을 때, 작품의 전체 의미와 결말 구조가 어떻게 새롭게 이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장끼전>에 나타난 폭력

‘폭력’은 사전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을 뜻하는 말이지만,<sup>14)</sup> 법적·사회문화적·문학적 의미는 모두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sup>15)</sup> 최근에는 괴롭힘, 모욕, 무시, 방임, 가스라이팅(gas-lighting)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감

13) 물론 폭력의 주체가 동시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폭력을 ‘재귀적(reflexive)’인 것으로 다룰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Christopher Scanlon and John Adlam, “Reflexive Violence”, *Psychoanalysis Culture & Society* 18(3), 2013;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5~39쪽 참조. <장끼전>에 나타난 재귀적 폭력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14)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 국립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https://stdict.korean.go.kr>)

15) 이에 대해서는 최어진(2019), 앞의 논문, 10~11쪽 참조. 같은 논문에서 최어진은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다층성을 고찰하면서 요한 갈통(Johan Galtung)과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 등의 견해에 착안하여 개인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세 층위 하에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핀 바 있다(최어진(2019), 앞의 논문, 10~17쪽, 26~45쪽). 본고에서 제시하는 폭력의 개념과 층위 역시 최어진(2019), 앞의 논문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정 폭력(emotional Gewalt)’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sup>16)</sup>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혐오와 분노의 감정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나,<sup>17)</sup> 나카지마 요시미치(中島義道)가 불쾌, 혐오, 경멸 등을 특별히 ‘차별 감정’이라고 명명한 것 역시 타자를 향한 부정적 감정을 ‘폭력’으로 다룬 예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이상에서 언급한 폭력의 개념은 ‘(인간)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폭력도 있다. 이를테면 요한 갈통(Johan Galtung)과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 등은 감지되지 않거나 객체가 불분명한 순간에도 작용하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structural/systemic)’ 폭력의 존재를 포착해냈다.<sup>19)</sup> 그간 <장끼전>을 유랑민이나 하층민의 삶, 가부장제 등의 신분제 및 사회구조적 문제와 관련시켜 이해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바로 작품 내외에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을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적인 방식으로 작

---

16) 베르너 바르텐스, 손희주 옮김, 『감정폭력-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폭력 이야기』, 걷는 나무, 2019.

17)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00~214쪽.

18) 나카지마 요시미치, 김희은 옮김, 『차별 감정의 철학』, 바다출판사, 2018.

19) 갈통은 먼저 ‘구조적(structural)’ 폭력과 ‘개인적(personal)’ 폭력이라는 구분법을 제시하고 각각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육체적인 것(physical)/정신적인 것(psychological), 의도된 것(intended)/의도되지 않은 것(not intended), 드러난 것(manifest)/잠재하는 것(latent), 객체가 없는 것(without object)/객체가 있는 것(with object)’ 등을 제시하였다(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969, pp.167~174).

한편 지젝은 ‘가시성’에 기준을 두고 폭력을 ‘주관적(subjective)’ 폭력과 ‘객관적(objective)’ 폭력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객관적’ 폭력은 ‘상징적(symbolic)’ 폭력과 ‘구조적(systemic)’ 폭력으로 나뉜다. 그에 따르면 ‘객관적’ 폭력 중에서도 ‘구조적’ 폭력은 쉽게 인식되거나 포착되지 않는다(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23~25쪽).

용하는 ‘개인적(personal)’ 폭력이다.<sup>20)</sup> 가해자로부터 시작된 힘의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신체적 폭력이나 성(性)적 폭력, 언어폭력이나 명예 훼손 뿐 아니라, 따돌림과 적대적 태도, 분노와 위협, 혐오와 침묵, 무대응과 방임 등도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이로써 피해자가 겪을 고통이나 공포 등에 주목한다면, 모든 폭력은 곧 정신적 폭력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바로 <장끼전> 속 여러 등장인물들에 의해 자행되는 ‘개인적’ 폭력에 좀 더 관심을 두고자 한다.

특기할 것은 이상의 폭력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에 의하면 개인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각자 스스로의 원인이 되거나 서로를 야기하기도 하며,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차별과 억압, 불합리 등은 이른바 ‘문화적(cultural)’ 폭력에 의해 합리화되거나 은폐되기도 한다.<sup>21)</sup> 폭력적인 인간은 부당한 사회구조 속에서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개인과 사회는 지속적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문학작품 속 폭력을 고찰할 때 무엇보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상의 다양한 폭력들의 관계를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폭력이 등장인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sup>22)</sup>

20) 이때 ‘개인적’이라는 표현은 행위주체로서 ‘개인(個人)’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법적인 차원에서의 ‘직접’ 또는 ‘사적(私的)’인 의미에 더 가깝다. 예컨대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나 집단들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서 ‘직접적’ 폭력을 정의하고 이를 언어적인 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으로 나누기도 했다(요한 갈등,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83쪽)

21) “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구조적 폭력은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고, 문화적 폭력 역시 반복과 완성을 통해 그 자체를 형성한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성하는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요한 갈등, 강종일 외 옮김(2000), 위의 책, 87쪽).”

22) 이상의 문제의식은 한글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한 최어진(2019), 앞의 논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장끼전>은 장끼가 죽는 데까지는 이본마다 큰 차이가 없으므로,<sup>23)</sup> 본고에서는 주로 세창서관본 <장끼전>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sup>24)</sup> 다만 앞서 언급한 돌출적 결말과 관련된 이본들로 장서각본 <자치가전>(19장),<sup>25)</sup> 고려대본 <즈치가>(19장),<sup>26)</sup> 이수봉본 <자치전나라><sup>27)</sup>, 임기중본 <자치가라>(낙장본, 7장)<sup>28)</sup> 등을 사용한다.

<장끼전>은 엄동설한 추위에 떠돌던 장끼와 까투리가 콩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콩을 먹으려고 하는 장끼를 까투리가 막아서자 장끼는 곧바로 폭력적 언어로 대응한다. 이본별로 언어의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수상한 인간의 자취가 느껴진다고 콩을 먹지 말라고 만류하는 까투리에게 장끼가 느닷없이 ‘미련하다’고 하며 반박을 시작한다. 좁고 외진 곳이라 동물들도 자취가 끊긴 마당에 사람이 올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까투리는 포기하지 않고 꿈의 내용을 언급하며 그를 만류한다.

어제밤 이경초(二更初)의 첫잠드러 꿈을 꾸니 북망산(北邙山) 음지작의 구진비 훗뿌리며 청텡(青天)의 쌍무지개 홀지의 칼이 되어 자내 머리 땡경 배여 내리치니 자내 죽을 흉몽(凶夢)이라 제발 그 콩 먹지 마소 (중략) 까투리 또한

23) 이문성(2013), 앞의 논문, 422쪽.

24) 김진영 외, 『실창 판소리전집』, 박이정, 2004, 285~300쪽에 실려 있다. 이하 <세창서관본>이라 칭하고, 면수는 전집의 표기를 따른다.

25) 이유헌 외, 『장끼전의 작품세계』, 보고서, 2013, 263~276쪽에 실려 있다. 이하 <장서각본>이라 칭한다.

26) 이유헌 외(2013), 위의 책, 135~166쪽에 실려 있다. 이하 <고려대본>이라 칭한다.

27) 이수봉소장본은 최진형의 소개를 통해 그 일부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최진형 옮김, 『장끼전』, 지만지, 2008, 87~93쪽에 그 결말이 실려 있다. 이하 <이수봉본>이라 칭한다.

28) 이유헌 외(2013), 앞의 책에는 임기중소장본이 총 6편 실려 있다. 여기에서 참고한 이본은 255~261쪽에 실린 낙장본(7장)이다. 이하 <임기중본>이라 칭한다.

말이 삼경야(三更夜)의 꿈을 꾸니 천근(千斤)드리 무쇠가마 자네 머리 흠벼 쓰고 만경창파(萬頃蒼波) 김흔 물의 아조 풍덩 빠졌거날 나 혼자 그 물가에서 대성통곡(大聲痛哭)하여보니 자네 죽을 흉몽(凶夢)이라 부대 그 콩 먹지마라 (중략) 까토리 하난 말이 그난 그럿타 하려니와 사경(四更)의 꿈을 꾸니 노인(老人) 당상(堂上)하고 소년(少年)이 잔치할제 스물 두 폭 구름 차일(遮日) 밧 찻든 서발장대 우직슨 똑딱 부러지며 우리 들의 머리에 아조 흠벼 덤혀 뵈이니 답답한 일 볼 꿈이요  
(〈세창서관본〉 5-7)

까투리의 꿈속에서 장끼는 목을 베이거나 물에 빠지며, 몸에 별이 떨어지거나 개에게 쫓긴다. 어떤 이본에서든지 까투리의 꿈은 모두 장끼가 처참한 모습으로 죽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까투리는 꿈을 통해 이미 장끼의 죽음을 목격했으므로, 그가 콩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매우 심각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이다. 따라서 까투리가 장끼의 행위를 만류하는 것은 장끼의 생명을 아껴서임에 틀림없지만, 곧 마주하게 될 참혹한 광경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다. 장끼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자각은 까투리에게 엄청난 부담과 공포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장끼는 나름대로 창의적인 해몽을 내놓으면서 까투리에게 대적한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거듭 지적된 바와 같이 장끼의 해석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편의적이어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가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뒤틀린 성격의 소유자라는 지적은 바로 이 해몽 장면에서 유래한다.<sup>29)</sup> 그는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확증 편향으로 치닫지만, 까투리는 그 허황된 말에 설득되지 않는다. 그러자 이제 장끼는 까투리를 ‘이리 차고 저리 찬다’.

29) 김종철은 장끼의 성격적 특성을 ①허위의식, ②고집, ③허무주의, ④폭력적 성격, ⑤뒤틀린 성격 등으로 요약한 바 있다(김종철(1996), 앞의 책, 97~104쪽).

장끼란 놈 대로(大怒)하야 두 발노 이리 차고 저리 차며 하난 말이 화용월태(花容月態) 저 간나위년 기둥서방 마다하고 타인남자(他人男子) 질기다가 참바 올라 주황사로 뒤죽지 결박(結縛)하야 이 거리 저 거리 종로(鐘路) 네 거리로 북치며 조리 돌니고 삼모장과 치도곤으로 란장(亂杖) 마질 꿈이로다 그런 꿈말 다시 마라 압정갱이 썩거놀나 (〈세창서관본〉 9)

장끼가 휘두르는 신체적 폭력보다 더욱 주목을 요하는 것은 그의 발화 내용이다. 까투리의 정절을 의심하면서 그가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저질렀다는 식의 막말을 내뱉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sup>30)</sup> 장끼는 터무니없는 말로 까투리를 공격하더니, 불길한 꿈 이야기를 했다가는 “압정갱이 썩거” 놓겠다고는 위압적인 말로 그의 신체를 위협한다. 까투리는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력을 통해 억압하려 드는 장끼의 앞에서 무력감과 공포 등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콩을 먹었다가는 “청산(靑山)을 영리별(永離別)하오리니 내 원망(怨望)은 부대 마소”<sup>31)</sup>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듯 장끼는 까투리를 향해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성적 폭력, 정신적 폭력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폭력을 휘두른다. 이때 장끼의 폭력은 사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까투리에게 가해진다는 점에서 개인적 폭력에 해당되지만, 당대 부부 관계를 고려하면 이를 사회구조적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까투리의 정절을 의심하는 장끼의 발화 역시 마찬가지다. 장끼의 폭력은 당대의 구조적 폭력을 내면화한 개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장끼가 까투리를 향해 휘두르는 폭력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

30) 참고로 <세창서관본>에는 이들의 금슬이 좋았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온다.

31) <세창서관본> 11.

는 이본이 있다. 낙질이기는 하지만, <임기중본>에서 장끼가 까투리에 대해 행하는 언어폭력의 수위가 다른 이본에서 확인되는 수준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저 연은 욕심이 만하여 충양을 못한다.”, “콩을 우리가 먹지 안코 가면 저 혼자 머으라고 말을 그리 하니 니가 네 똬를 먼제 안다.”, “이 콩 먹다고 황천부스홀라 날더러 호어니 네 아버지러 호여라.”<sup>32)</sup> 라는 식이다. 이렇듯 장끼는 까투리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까투리의 조부(祖父)와 부친까지 폄하하는 막말을 퍼붓는다.<sup>33)</sup> 여성을 향해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그의 주변인물에게 연좌의 형태로 폭력을 자행하는 남성주인공의 모습은 고전소설에서 매우 흔히 보인다.<sup>34)</sup> 실제로 조선사회에서 출가한 후 여성의 평판은 친정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였고, 이는 여성의 행동을 억압하고 규율하는 장치라 되었다. 논리적으로 까투리를 설득할 능력이 없어 그의 친정식구를 들먹이는 장끼의 언어폭력은 심각하게 왜곡된 그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그와 같은 행동이 드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sup>35)</sup>

어쨌거나 결국 장끼는 콩을 먹는다. 모든 이본에서 장끼는 콩을 먹고 뒷에 걸린다. 그런데 이때 장끼는 까투리에게 자기가 죽어가는 것이 맞는지 맥과 눈동자를 살펴달라고 부탁한다.

32) <임기중본> 3-뒤~7-뒤.

33) “네 흐리비 제 네 아버 적부툼 무식호 늬인들 고금 억디 사귀말을 엇지 듣소 못하여 더야 니 즈세 이를 거시이 들어보아라.” (<임기중본> 7-뒤)

34) 이는 특히 한글장편소설 속 남성 주인공에게서 두드러진다. 한글장편소설 속 남성 주인공의 폭력적인 형상에 대해서는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최어진(2019), 앞의 논문 등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35) 이와 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장끼전>이 여성적 시선에 입각하여 장끼로 대변되는 가부장제의 남성성을 대상화시켜 폭로하고 있다는 서유석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서유석(2010), 앞의 논문, 250쪽).

예라 이 년 요란하다 후환(後患)을 미리 알면 산의 가 리 뉘 잇시리 선미(先未)런 후실기(後失期)라 죽년 놈이 탈업시 죽으랴 사람도 죽기 살기를 맥(脉)으로 안다 하니 나도 죽지 안켓나 맥(脉)이나 집퍼보소 싸토리 대답(對答)하고 이른 말이 비위맥(脾胃脉)이 거절(去絶) 간맥(肝脉)은 서늘하고 태충맥(太冲脉)은 거더가고 명맥(命脉)은 끈쳐가내 **애고 이게 원일이요 원슈(怨讎)로 다 원슈(怨讎)로다 고집불통(固執不通) 원슈(怨讎)로다**

장끼란 놈 허난 말이 맥은 그러하나 눈청을 살펴보소 동자(瞳子) 부쳐 온전(穩全)한가 싸토리 한심(寒心) 쉬고 살펴보며 이른 말이 인제난 속절업내 저편(這便) 눈의 동자(瞳子) 부쳐 첫 새벽의 썬나가고 이편 눈의 동자 부쳐 지금(至今) 썬나가려고 파랑보(襟)의 붓질 싸고 곰방대 부쳐 물고 길목버선 감발하내  
(〈세창서관본〉 15-16)

이 대목은 주요 이본에서는 모두 등장하고 있다.<sup>36)</sup> 이 대목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장끼가 죽어가는 과정을 직접 본 까투리가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애고애고 이내 팔자(八字) 이대지 기박(崎薄)한가 상부(喪夫)도 자주 한다 첫재 랑군 으덧다가 보라매게 재여가고 둘째 랑군(郎君) 으덧다가 산양개게 물너가고 셋재 랑군(郎君) 으덧다가 살님도 채 못하고 포슈(砲手)의게 마져 죽고 이번 랑군(郎君) 으더셔난 금슬(琴瑟)도 조커니와 아홉아들(九子) 열두 딸(十二女)을 나이노코 남혼녀가(男婚女嫁) 채 못하야 구복(口腹)이 원슈(怨讎)로 콩 하나 먹으려다 저 차위의 덜컥 치여스니 속절업시 영리별(永離別) 하켓고나 **도화살(桃花殺)을 가졌난가 상부살(喪夫殺)을 가졌난가 이내 팔자(八字) 험악(險惡)하다**  
(〈세창서관본〉 16-17)

36) 최혜진은 필사연대가 있거나 특징적인 삽화가 있는 경우, 완결된 결말을 갖춘 경우를 중심으로 12개의 이본을 주요 이본으로 고르고 서사단락을 비교한 바 있다(최혜진(2010), 앞의 논문).

처음에는 ‘고집불통이 원수’라고 하면서 장끼의 어리석은 행동을 원망하는 듯 보이던 까투리는 이내 자신의 팔자를 탓하고 자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장끼의 선택과 이로 인한 죽음은 까투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상부(喪夫)를 까투리의 “팔자”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도리어 그것이 결코 까투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데도 까투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른다.

장끼는 그렇게 덧에 걸리더니 결국 차침지에게 잡혀가서 요리가 된다. <장서각본>에서는 장끼가 차침지에게 먹고 뼈마저 삼살개에게 먹히는 장면이 까투리의 시점에서 매우 상세하게 묘사된다. 이 광경을 지켜본 까투리는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한다.<sup>37)</sup> 까투리의 울음에는 장끼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끝내 막아내지 못한 자책과 통한이 섞여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까투리가 겪었을 자기 부정과 자책의 감정 등이 바로 ‘재귀적(reflexive)’ 폭력에 해당한다.<sup>38)</sup> 최초의 폭력은 장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까투리는 스스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기에 이른 것이다. <장서각본>에서 장끼는 자책하는 까투리에게 자신이 죽음이 상부(喪夫)를 자주 하는 까투리의 탓인 양 욕을 내뱉는다.<sup>39)</sup> 이 말은 터무니없긴 하지만 주목을 요한다. 이 때문에 까투리가 더 큰 자책과 후회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0)</sup>

37) <장서각본> 13-앞.

38) Christopher Scanlon and John Adlam(2013), 앞의 논문; 최어진(2019), 앞의 논문, 35~38쪽.

39) “장끼란 놈 그 중의 디답하여 일은 말리 상부 즈로 호는 년을 디장부 너가 되어 너 달리고 살기가 실체로다.” (<장서각본> 9-뒤)

40) Christopher Scanlon과 John Adlam은 현실세계의 많은 재귀적 폭력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상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Christopher Scanlon and John Adlam(2013), 앞의 논문). 여기에서도 까투리가 겪는 자기부정과 자책의 감정

한편 장끼가 죽자 까투리는 자식들과 함께 장례를 치른다. 후반부 서사는 이때 조문을 온 온갖 새들이 까투리에게 청혼을 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까마귀, 오리, 두루미 등이 과부가 된 까투리에게 저마다의 능력을 뽐내며 개가를 제안한다. 그런데 이때 새들의 발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까마귀는 까투리가 청혼을 거절하자 대로하여 “너갓튼 미물이 슈절이 당(當)”하며 비아냥대고,<sup>41)</sup> 오리는 까투리의 면전에서 당장 함께 밤을 보내자는 말을 하기도 한다.<sup>42)</sup> 이들은 까투리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새들을 상대하며 까투리가 “한심(寒心)”을 짓거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sup>43)</sup> 더욱이 이들의 관심은 까투리를 오로지 성(性)적 대상으로 취급한 데서 비롯한다는 점, 이는 까투리 본인의 의사와는 반(反)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성적 폭력이다.<sup>44)</sup> 그리고 이는 여성을 향한 남성의 차별적 시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 이 차별은 당대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뿌리 깊게 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성격도 지닌다.

<장끼전>에서 까투리는 반복적으로 폭력에 노출된다. 장끼는 까투리

---

을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 상흔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 말을 듣고 까투리는 장끼의 몸을 빼내주지 못해 안타까워한다(<장서각본> 9- 뒤).

41) <세창서관본> 25.

42) “오리 하난 말이 과부(寡婦) 호라비 만나난대례절(禮節)보고 사쥬(四柱)불가 신부신랑(新婦新郎) 두리 자연궁합(自然宮合) 절노 되나니라 택일(擇日)이나 하여보자 일상생기(一上生氣) 이중툰의(二中天宜) 삼하절체(三下絕體) 사중유혼(四中遊魂) 오상화해(五上禍害) 일중복덕일(六中福德日)이요 턱덕일덕(天德日德)이 합(合)하엿스니 오날밤이 웃듬이라 이성지합(二姓之合)은 백복지원(百福之源)이니 잠말말고 조금 자세.” (<세창서관본> 28-29)

43) “까토리 한심(寒心)지고 하난 말이”(<세창서관본> 24), “까토리 울다 하난 말이”(<세창서관본> 28) 등 참조.

44) 이문성(2013), 앞의 논문, 431쪽. 이문성에 따르면 양반적 풍모의 두루미를 부각시켜 남성의 폭력성을 드러낸 이본은 고려대본이 유일하다고 한다.

를 향해 가장 심각한 가해를 저지르고도 당당하며, 고집을 피우다 끝내는 죽어버리기까지 해서 까투리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까투리가 자책과 자기 부정, 후회 등을 겪게 된다는 데 있다. 역설적이게도 까투리를 향한 폭력은 장끼가 사라지고 나서 더욱 극심해지는 듯 보이기도 한다.<sup>45)</sup> 까투리의 내면을 따라 <장끼전>의 서사를 읽어낸다는 것은 바로 까투리가 겪었을 이 고통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그의 삶에 주목하는 작업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면서 몇몇 돌출적인 <장끼전>의 결말구조의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 피해자의 서사로 읽는 <장끼전>

#### - 돌출적인 결말과 관련하여

<장끼전>은 결말에서 까투리가 개가를 하느냐에 따라 유형을 달리한다.<sup>46)</sup> 개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새로운 장끼를 만나 개가를 하는데, 일부 이본에서는 다른 새에게 개가를 하기도 한다. 개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절을 하거나 자살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합의된 결말로 새로운 장끼를 만나 개가를 하는 유형을 꼽기도 하고,<sup>47)</sup> 아예 합의된 결말이 없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즐겼다고 보기도 했다.<sup>48)</sup> 분명한 점은 <장

45) 이와 관련해서 장끼의 장폐 중에 “맛상제”가 “소리개”에 물려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부분도 주목해볼 만하다(<세창서관본> 21-23). 장끼의 죽음을 온전히 슬퍼할 틈도 없이 자식이 또 다른 위협에 빠지는 상황은 까투리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6) 이문성(2013), 앞의 논문, 422쪽.

47) 이문성(2013), 위의 논문, 422쪽.

48) 최혜진(2010), 앞의 논문, 382쪽.

끼전>의 다양한 결말구조를 통해 당대 향유층의 다채로운 미적 감각과 향유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상기한 바와 같이 몇몇의 이본에서 돌출적이고 특징적인 결말이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장에서는 <장끼전>에서 까투리에게 가해졌던 반복적이고 중층적인 폭력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까투리가 겪었을 심경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까투리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결국 자책과 회한, 자기 부정에 시달리는 장면을 포착해 내었다. 이와 같은 까투리의 형상에 유념하면서,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몇몇 이본의 결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난디읍는 장끼는 놈 썰썰하며 화초 속으로 나오면서 싸틀리덜어 날은 말리  
니가 마춤 상처하고 지금까지 후취을 못혀여신니 네 날과 혼가지로 빅연히로  
혀여 보자 만닐 니 말 곳 안니 들으면 니 쥬먹의 터질리라 싸틀리 괴가 딱혀  
날은 말리 닌저는 할 슈 읍니 하고 서로 동락 티평혀여 질기더라.

(<장서각본> 19-앞)

까투리는 까마귀를 물리친 후 오리와 물의 삶과 산의 삶 중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해 다룬다. 오리가 물의 삶에 대해 감언이설을 늘어놓은 것은 까투리를 꼬여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까투리는 속지 않는다. 물속의 삶이 아무리 좋다하여도 육지의 삶만 못할 것이라며 우수한다. 까투리는 오리의 진실 되지 못한 구혼에 응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 느닷없이 장끼가 등장한다. 장끼는 까투리에게 자신이 상처(喪妻) 후 후취를 못하였다면서 함께 백년해로 할 것을 제안한다. 앞서 까마귀, 오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까투리가 장끼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 발화의 내용과 태도를 미루어 보면, 장끼는 까투리를 설득하려는 최소

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그런 낚시를 눈치 채기라도 한 듯이 장끼는 “니 말 곳 안니 들으면 니 쥬먹의 터질리 라.”라고 하면서 까투리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한다. 까투리는 “할 슈 읍 내” 라는 짧은 말만을 남기고 장끼에게 개가한다.

이와 같은 <장서각본>의 결말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까투리가 개가를 결심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단순한 에피소드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거나,<sup>49)</sup> 전반부에 공들여 구축된 까투리의 이미지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회극적” 또는 “돌발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보았다.<sup>50)</sup>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장끼와는 대조되는 까투리의 진지한 삶의 태도가 결말부에 와서 골계적으로 뒤틀리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 <장끼전>의 서사는 일관되게 뒤틀림의 미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의외의 행동이 까투리에 대한 독자들의 온전한 감정이입을 차단한다는 것이다.<sup>51)</sup>

이와 같은 해석에 재고의 여지는 없는 것일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까투리는 <장끼전>의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심각한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린다. 특히 까투리는 장끼의 죽음이 곧 닥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공포를 현실로 맞닥뜨리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은 끝내 까투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 소리개 등에 의해 가해지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 못새들에 의해 지속되는 성적인 제스처와 멸시 등이 까투리에게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했으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

49) 정출현(1991), 앞의 논문, 245쪽.

50) 김종철(1996), 앞의 책, 94쪽.

51) 김종철(1996), 위의 책 122쪽.

으면 폭력을 자행하겠다고 말하는 장끼의 형상은, 그리고 그 요구에 하릴 없이 수긍하고 미는 까투리의 모습은 그저 돌출적인 결말을 향한 단순한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일까.

현실 세계에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수많은 여성들이 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저 폭력을 견디는 것이라고 한다.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폭력당하는 현실이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sup>52)</sup> 아예 폭력을 문제 삼지 못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sup>53)</sup> 폭력의 피해자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억압과 착취에 맞서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폭력의 결과이자 참상인 것이다.<sup>54)</sup>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까투리의 선택을 다시 바라보자. 신체적 능력이나, 재력, 신분 등을 뺀내며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다른 새들의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했던 까투리가 도대체 왜 그럴듯한 이유 하나 대지 못하는 장끼는 받아들이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장서각본>에서 장끼가 차침 지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졌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파괴해진 까투리는 어쩌면 다시 시작된 폭력 앞에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까투리의 선택은 그가 겪어온 중층적이고 반복적인 억압과 폭력의 결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이수봉본>의 결말도 주목된다.<sup>55)</sup>

52) 정희진, 『아주 친밀한 폭력』, 교양인, 2016, 155쪽.

53) 김홍미리, 『여성주의 관점에서 ‘아내폭력’ 이해하기』, 김은경 외, 『가정폭력—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한울, 2009, 32~36쪽; 정희진(2016), 위의 책, 161~166쪽.

54) 이와 관련하여 정희진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결과로서 “무기력, 보복의 두려움, 자아의식 상실, 판단 능력 결여, 모순에 가득 찬 폭력 대처 기술” 등의 상태를 폭력의 원인인 양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정희진(2016), 위의 책, 25쪽).

55) 이수봉소장본은 최진형의 소개를 통해 그 일부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최진형 옮김, 『장끼전』, 지만지, 2008, 87~93쪽에 그 결말이 실려 있다.

갓토리 이른마리 다시곰 생각하니 니팔자 계박하야 승부를 자조하니 소요이라 하니. 중기난 본체도 안니하고 내려 시신 부목등니 그렁저렁 신명만 누취하고 광더흐 환세간의 니몸용신 포기하다 슈다흐 저슈금의 승면하기 못참하니 아모르며 승외용신하기 어렵스라. 츠라리 히정자서 고기나 되오리라. 동희을 향서 편편이 나라서 신을 버셔 간의 낫고 너울버셔 후려치고 망망더히 풍파 중의 아조 덩땡 바져 이리저리 단니더라.

까투리는 자신의 생애를 비판하면서 동해로 향한다. 그리고 차라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되겠다면서 동해에 빠져버린다. 자살하는 것이다.<sup>56)</sup> 물에 몸을 던지기 전에 “용신(容身)”이 어렵다는 말을 거듭 남기는 모습은 그가 겪었을 삶의 고초를 여실히 보여준다. 삶을 계속하는 것보다 “고기”가 되는 것이 낫겠다는 까투리의 발언에서는 일말의 삶에 대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중의 모이트 짐싱니 그 불승흔 형상을 보고 여러중이 의논하여” 썩의 비(碑)를 써주었다고 되어있다. <이수봉본>은 일생을 폭력에 시달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까투리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편, 이에 대한 향유층의 연민과 공감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sup>57)</sup>

이상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장서각본>이나 <이수봉본>의 결말을 돌

56) 정출현에 의하면 홍육 소장본 <즈치가라> 역시 까투리가 바다에 투신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정출현(1991), 앞의 논문, 248쪽). 이에 대해 정출현은 개가 부분이 삭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단순히 수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57) 선행연구에서는 이 이본의 맨 끝에 남겨진 ‘심심할 때 보고 한번 웃을만 하다’라는 필사기의 내용에 기대어 이 작품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최진형(2008), 앞의 책, 204쪽). 그러나 학술대회 당시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소설 작품 끝에 남기는 필사기는 관습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더러 있는바, 해당 내용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필사행위 자체에 대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출적이라거나 골계적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서사의 전반부에서 까투리가 얼마나 진지한 삶의 태도를 견지했는가에 대해 곱씹을수록, 이상의 두 이본이 보여주고 있는 결말은 더욱 비극적이고 진지하게 다가온다. 장끼가 한 알의 콩 앞에서 정신을 잃고 허무주의로 빠져들 때, 끝까지 그를 붙잡아 함께 생을 살아내고자 했던 까투리가 동해 바다로 뛰어들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장끼에게 개가하는 극단적 결말에서 현실을 바꿀 수 없으리라는 자포자기와 절망을 읽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sup>58)</sup> 바로 이 점에 주목한다면, <장끼각본>이나 <이수봉본>에서 폭력의 피해자로서 까투리가 겪었을 억압과 고통에 대한 관심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장끼가 죽었을 때에도 까투리는 장끼를 직접 원망하거나, 뒷을 놓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팔자를 탓한다. 까투리는 자신을 향해 자행된 폭력의 직접적 가해자인 장끼는 물론이고 장끼를 죽음으로 몰아간 구조적 불합리조차 인식해내지 못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모든 비난과 후회는 결국 스스로를 향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이어진다. 폭력적인 인간의 걸음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예 생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장끼전>을 피해자의 서사로 읽었을 때, 폭력의 참상에 대한 가장 진지하고도 비극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결말이 이상의 이본들에서 확인된다고 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상의 몇몇 이본이 뒤틀기를 통해 새로운 미의식을 창출하고 있다면, 바로 폭력의 피해자로서 까투리의 삶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까투리의 돌출적인 선택을 보여줌으로써 ‘불편함’을 제공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

58) 그렇다고 해서 본고에서 까투리의 나약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까투리의 자살은 일종의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결단이 절망이나 자포자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편 여러 새들의 구혼을 물리치고 동해로 가는 부분은 <고려대본>에 서도 보인다. “츠라라 동희슈의 점복이느 되어나셔 만경창과 물 가운데 시름업시 지닐지라”라고 외치는 까투리를 두고,<sup>59)</sup> “삶의 윤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한 최후의 대응방식”이라는 지적은 매우 적실하다고 판단된다.<sup>60)</sup> 이와 같은 점 때문에 <고려대본>이 <장끼전> 작품군 중에서 가장 진지한 이본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sup>61)</sup> 그런데 까투리는 동해로 가는 중에 장도령(장끼)을 만나 개가한다. 이 장끼는 “유연목은 송지터리 벌기 먹어 다 빠지고”, “우목실명”하였으며, “좌편 다리 총을 마즈” 절름발이의 형상을 하고 있다.<sup>62)</sup>

가토리 이 말 듯고	눈물 씻고 이른 마리	
전성의 무슴 꾀로	이니 팔지 괴험혀여	
우리 낭군 승부호고	슈절 종연 흐즈더니	
뉴 다른 부목드리	위력 겁탈 흐려 호고	
싱이 즈랑 가록호고	의관 치례 빗니 입고	
오락가락 추축혀여	니일 모리 괴약하니	
일가친척 의지 업서	어느 뉘가 돌볼손고	
현황천지 즈글시고	이니 몸 갈 더 업서	
즈결혀여 죽즈하니	모든 즈식 만실호고	
다른 가문 취츠하니	박명청송 괴롱하니	
동희슈를 향혀여서	덤벅 빠져 죽즈 혀여	(<고려대본> 17-뒤)

“부인 흥츠 슬퍼보니 날과 가치 불상호드”<sup>63)</sup>라고 말하는 장도령에게

59) <고려대본> 16-뒤.

60) 김종철(1996), 앞의 책, 107쪽.

61) 정출현(1991), 앞의 논문, 247쪽.

62) <고려대본> 17-앞.

까투리는 위와 같이 응수한다. 까투리는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까투리의 이 발언을 통해 반복적이고 중층적인 억압과 폭력이 그를 어떤 지경까지 내몰았는지 극명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장도령이 “그리도 이 세송이 스라잇고 볼거시라”<sup>64)</sup>면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하고, 까투리는 개가한다. 만약 까투리의 개가를 “졸지에 과부가 된 까투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행해야만 했던” 선택의 결과로 보고,<sup>65)</sup> 이때 절박함이라는 것을 홀로 된 여성이 처할 경제적·사회적 곤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선택은 여전히 ‘돌발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가가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sup>66)</sup> 더욱이 슬한 타인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 속에서 삶을 지속해온 까투리가 육체적 상처가 있는 장끼를 새로운 삶의 동반자로 선택하는 장면은 좀 더 음미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선행연구에서는 까투리가 지닌 ‘삶에의 의욕’, “행복에의 열망”을 중요하게 거론해 왔다.<sup>67)</sup> 그가 장도령을 선택하게 된 것은 현실을 살아내려는 결단이라는 것이다.<sup>68)</sup> 이와 같은 평가는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까투리의 선택을 지나치게 기능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폭력으로 점철된 삶 속에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던 까투리의 내면에 주목해보았을 때, 이는 미래에 대한

63) <고려대본> 17-뒤.

64) <고려대본> 18-앞

65) 최진형(2008), 앞의 책, 191쪽. 서유석 역시 “만약 까투리가 아홉 아들 열두 딸과의 생계를 생각했다면,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도령과의 혼인이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서유석(2010), 앞의 논문, 257면).

66) 권영호, 『장끼전 전승 작품군에 나타난 변이와 현실의식』, 『고전서사문학의 전승에 나타난 변이와 담당층 의식』, 지성인, 2013, 115쪽.

67) 김종철(1996), 앞의 책, 108쪽.

68) 김종철(1996), 위의 책, 108쪽.

낙관이나 삶에의 열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한다. 장도령의 구애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와 무관하게 말이다.

한편 까투리의 선택을 두고 “과부인 까투리와 노총각인 장도령”의 “교감”이나 장도령의 진정성 있는 “위로”와 “공감” 등에 주목한 경우도 있다.<sup>69)</sup> 그러나 만약 까투리와 장도령이 교감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까투리가 ‘과부’이고, 장도령이 ‘노총각’이어서는 아닐 것이다. 장도령은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며 이 점은 그의 육체적인 불구를 통해 강렬하게 암시된다. 까투리는 바로 장도령의 육체를 통해 그가 겪어온 폭력의 상흔을 알아본 것은 아닐까. 까투리의 선택은 ‘개가’를 통해 기대되는 새로운 삶에의 의욕을 드러내는 장치가 아니라, 장도령이 겪었을 폭력과 그로 인한 고단한 삶에 대한 적극적 ‘연대’의 결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이와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면 <고려대본>은 까투리와 같은 폭력 피해자의 삶이 폐기되지 않고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답을 보여주는 이본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까투리의 선택은 새로운 삶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4. 결론

이 논문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장끼전>을 다시 읽어보고자 시도되었다. 까투리는 작품 전체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데, 이와 같은 폭력이 까투리의 삶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보는 과정은 폭력의 참상이나 이로 인해 피해를진 피해자의 삶을 이해하는

69) 이문성(2013), 앞의 논문, 432쪽.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끼전>을 까투리라는 ‘피해자’의 서사로 읽어낼 때, 그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거나 돌출적이라고 치부되었던 몇몇 이본의 결말에 대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서각본>, <이수봉본> 등의 결말에서 확인되는 까투리의 선택은 생애 전체에 걸쳐 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가장 과격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폭력을 자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장끼의 죽음 뒤에 찾아온 술한 새들의 청혼을 거절하던 까투리가 폭력으로 위협하는 장끼에게 하릴없이 굴복해버리거나(<장서각본>), 아예 스스로의 삶을 끝내버리기 때문이다(<이수봉본>). 이상의 이본이 보여주고 있는 까투리의 선택은 기대를 크게 벗어난다는 점에서 돌출적이기는 하지만, 폭력의 참상에 대한 가장 진지하고도 비극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폭력의 피해자로서 까투리가 겪었을 억압과 고통에 대한 관심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대본>의 결말에서는 삶을 포기하려던 까투리가 신체적 불구를 안고 있는 장도령을 만나 새롭게 짝이 된다. 이는 또 다른 약자와의 연대를 통해 피해자의 삶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거듭된 불행 속에서 삶에 대해 극심한 피로를 느낀 까투리의 내면에 주목해보았을 때, 이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나 삶의 열망과는 무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고려대본>의 결말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고는 몇몇 돌출적인 이본을 대상으로 한바, 이상에서 살핀 까투리의 형상이 <장끼전> 작품군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장끼전> 작품군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상의 이본들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는 작업이 동반될 때 본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정당

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작품 속에 형상화되고 있는 중층적이고 반복적인 폭력과 억압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김진영 외, 『실창 판소리전집』, 박이정, 2004, 1~387쪽.

이유경 외, 『장끼전의 작품세계』, 보고사, 2013, 1~472쪽.

최진형, 『장끼전』, 지만지, 2008, 1~109쪽.

권영호, 「장끼전 연구의 반성과 전망」, 『어문학』 52, 한국어문학회, 1991, 1~35쪽.

권영호, 『고전서사문학의 전승에 나타난 변이와 담당층 의식』, 지성인, 2013, 1~366쪽.

김은경 외, 『가정폭력—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한울, 2009, 1~404쪽.

김종철,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1~340쪽.

박일용, 「<장끼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동리연구』 창간호, 동리연구회, 1993, 139~157쪽.

서유석, 「<장끼전>에 나타나는 ‘뒤틀린’ 인물 형상과 여성적 시선」, 『서강인문논총』 2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235~264쪽.

서유석, 「실창판소리 남성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2019, 95~127쪽.

소인호, 「<장끼전>에 나타난 수절과 개가의 문제」, 『인문과학논집』 41,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0, 123~133쪽.

이문성, 「고대본 <자치가>의 특징과 의미」, 『판소리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421~447쪽.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52~487쪽.

정출현, 「<장끼전>에 나타난 조선 후기 유랑민의 삶과 그 형상」,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234~277쪽.

정출현,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형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7, 민족문화사연구소, 1995, 156~189쪽.

정항균, 『이비농의 여인들 또는 폭력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7, 1~715쪽.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253~287쪽.

- 정희진, 『아주 친밀한 폭력』, 교양인, 2016, 1~279쪽.
-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1~236쪽.
- 최진형, 『서사문학과 문화담론』, 보고서, 2008, 1~347쪽.
- 최혜진,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353~394쪽.
-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69~121쪽.
-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한국고전문학작품론』, 휴머니스트, 2017, 1~494쪽.
- 나카지마 요시미치, 김희은 옮김, 『차별 감정의 철학』, 바다출판사, 2018, 1~206쪽.
-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1~725쪽.
- 마사 누스바움, 강동혁 옮김, 『분노와 용서-적개심, 아량, 정의』, 뿌리와 이파리, 2018, 1~583쪽.
- 베르너 바르텐스, 손희주 옮김, 『감정폭력-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폭력 이야기』, 걷는 나무, 2019, 1~267쪽.
-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1~335쪽.
- 요한 갈통,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1~581쪽.
-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969, 167~191쪽.
- Scanlon, Christopher and John Adlam, “Reflexive Violence”, *Psychoanalysis Culture & Society* 18(3), 2013, 1~33쪽.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Violence in *Jangkkijeon*

Choe, Oc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Jangkkijeon*, with a special focus on the character of 'KkatURI' as the victim of the story. KkatURI had been exposed to multiple and repetitive violence, which were personal, structural, and cultural. In this regard, reading *Jangkkijeon* as a narrative of the victim might give new meaning to some of the endings of this piece which were considered unimportant or unusual. Furthermore, exploring how the violence affected KkatURI's mind and life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lives of victims of violence.

In some versions of this piece, such as Jangseogak(藏書閣)'s and Lee subong's versions, KkatURI committed 'reflexive violence' to her own life. In these versions, she submitted to the threats of a violent Jangkki or put herself to death. Even if these endings are unexpected and shocking, it should be noted that they show serious and insightful recognition on the tragedy of violence. Meanwhile, in the Korea Univ.'s version, KkatURI got married again to another Jangkki, named Jangdoryeong, who was with disabilities. This ending shows us a new perspective for her life through the solidarity of the two weak creatures, KkatURI and Jangdoryeong.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various endings of *Jangkkijeon* presented in different versions.

**Key Words** *Jangkkijeon*, KkatURI, violence, victim, reflexive violence, solidarity of the weak

논문투고일 : 2020.01.20  
심사완료일 : 2020.02.15  
게재확정일 : 2020.02.20